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Briefing on Construction Engineer Trends



www.cepik.re.kr

주소
06098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0,
8층(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TEL 02-6204-4332

본 자료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
(홍유나 선임연구원, hyn7173@cepik.re.kr,
02-6204-4344)으로 연락바랍니다.

01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

- 해당 분기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

02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 등급, 직무, 연령, 성별에 따른 분석

03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04 건설기술인 재직 현황 및 특성

- 등록된 건설기술인 중 현재 재직상태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종별 연령, 등급, 직무, 성별 등 현황 및 특성

05 여성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 여성 건설기술인 평균연령 및 연령 분포
- 여성 건설기술인 직무/등급별 현황

06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 해당 분기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현황

분석 개요

본 발간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설기술인 통계자료'이며, 각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2024년 3분기(9월 30일) 시점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 등급 및 직무 분야에 대한 분류기준은 해당 건설기술인이 '경력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한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결과에 따름.
- ▶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이란 최초 경력신고를 통해 초급 등급이 발생한 건설기술인을 뜻함.
- ▶ '재직 건설기술인'이란 해당 분기 재직상태인 자를 뜻하며,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업태를 분류함. 건설기술인이 속한 기업이 복수인 경우 (종합건설 > 전문건설 > 주택건설 > 건축사사무소 > 감리전문회사 > 엔지니어링 > 측량업 > 기술사사무소 > 안전진단전문기관 > 품질검사전문기관 > 기타건설업 > 기타) 순으로 분류함.

01 건설기술인 관련 이슈

1. (정책) E&E 포럼, '22대 국회에 바란다' 제4차 세미나 개최

- 지난 7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설계·엔지니어링산업 발전과 건설기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E&E 포럼 제4차 세미나가 개최됨.
*(E&E 포럼)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기술인 권익증진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설계·엔지니어링 관련 3개 협회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2023년 5월 출범한 민간 포럼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호 E&E 포럼 운영위원장은 '22대 국회 정책과제 제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5대 도전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8개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국회 E&E 포럼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 (5대 도전과제) 설계·엔지니어링과 기술 중심 산업구조 혁신, 대가기준 정상화,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젊고 유능한 인재영입 기반 구축, 건설기술인 워라밸 실현

2. (경력관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관리항목 표준화·코드화로 '디지털 경력관리' 시동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항목(공사개요 등)의 표준화·코드화를 시작함.
 - ▶ (기준) 참여하는 사업의 공종이나 규모를 별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최적 건설기술인 선별에 한계 존재
 - ▶ (개선) 공사개요 주요 항목의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여 실제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신고된 데이터를 코드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 7월 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설계 엔지니어링(CEMS)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산연계를 추진 중임.
- 협회는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설기술인이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향후 맞춤형 일자리 매칭에 활용하는 등 건설기술인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3. (자격) 토목 BIM 전문인력에 국가공인 자격 부여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플러스 자격 시범사업 분야로 스마트건설의 핵심 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이 선정되어 국내 최초 BIM 관련 국가공인 전문인력이 배출될 예정임.
*(플러스 자격) 기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추가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보유 자격중에 해당 역량을 추가 부여하는 인증제도
- BIM이 플러스 자격 시범사업 분야에 선정된 것은 BIM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외 범정부 차원에서도 스마트건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로 해석됨.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토목산업기사 및 토목기사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합격 시 'BIM 플러스' 자격을 부여할 예정임.
- 토목 BIM 플러스 자격 발급을 위한 교육 및 시험 운영 기관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올해 첫 추진되는 BIM 플러스 자격이 BIM 인력 양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발주처 등이 신뢰성 높은 국가자격을 요하는 만큼 메리트 있는 자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4. (권익증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워라밸 실현'을 위한 연구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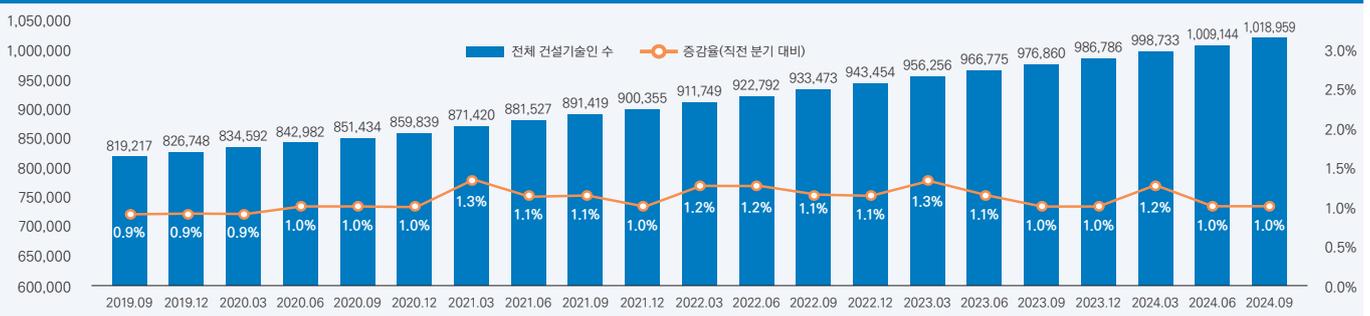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산업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유입 촉진을 위해 '건설기술인의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연구'에 착수함.
- 이번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건설기술인의 워라밸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실현 방안 모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
- 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인의 워라밸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기존 인력의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정부와 업계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 (연구 내용) 건설기술인 워라밸 현황 진단 → 워라밸 정책/제도 발굴 → 단계별 Action Plan 제안(정부, 협단체, 기업 차원의 계획안) 도출, 워라밸 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제안 등)

02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1. 전체 건설기술인 1,018,959명, 직전 분기 대비 1.0% 증가

- 2024년 3분기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1,018,959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9,815명(+1.0%) 증가하였으며, 매 분기 0.9~1.3% 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 전체 건설기술인 현황 및 증감



2. 초급 건설기술인 529,172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51.9% 차지

- 2024년 3분기 기준, 등급 보유 건설기술인은 956,619명(93.9%)이며, 그 중 초급 건설기술인이 529,17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51.9%)을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모든 등급의 건설기술인 수는 증가하였으며, 등급 없음(+8.0%), 중급(+5.1%), 초급(+4.6%), 특급(+2.9%), 고급(+2.8%) 순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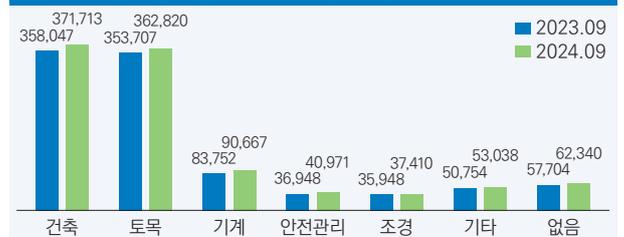
〈그림 2〉 건설기술인의 등급별 현황



3. 건축 및 토목 건설기술인 734,533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72.1% 차지

- 2024년 3분기 기준, 건축 및 토목 분야 기술인이 각각 371,713명, 362,820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72.1%를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모든 분야의 건설기술인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안전관리(+10.9%), 건설지원(+10.7%), 기계(+8.3%) 분야의 건설기술인 수 증가가 두드러짐.

〈그림 3〉 건설기술인의 직무별 현황



4. 40~50대 건설기술인 605,099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59.4% 차지

- 2024년 3분기 기준, 40~50대 건설기술인은 605,099명(59.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20~30대 건설기술인은 162,861명(16.0%)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건설기술인 수는 증가하였으며, 60대 이상(+13.1%), 50대(+7.0%), 30대(+2.9%), 20대(+0.6%) 순으로 증가함. 반면, 40대의 경우 4.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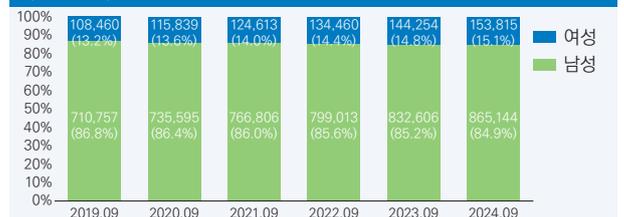
〈그림 4〉 건설기술인의 연령별 현황



5. 여성 건설기술인 비중 지속적 증가

- 남녀 건설기술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여 각각 865,144명(+3.9%), 153,815명(+6.6%)을 기록함.
- 여성 건설기술인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하여 전체 건설기술인의 15.1%를 차지함.

〈그림 5〉 건설기술인의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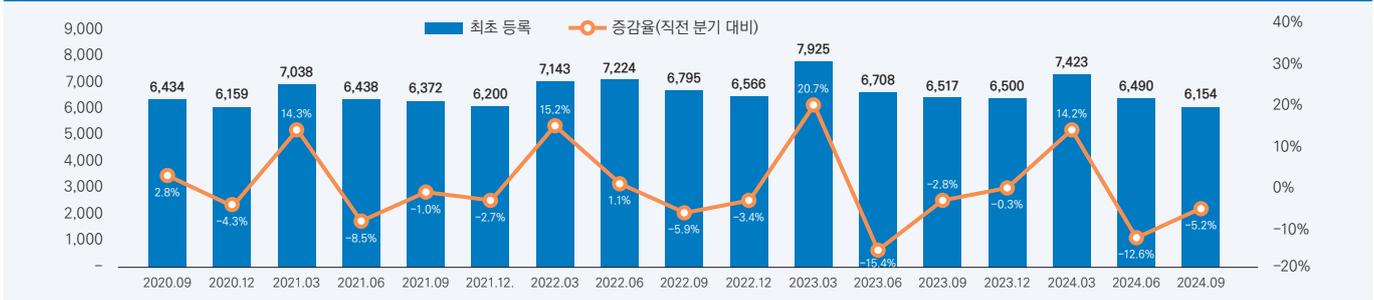
03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1. 2024년 3분기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6,154명, 직전 분기 대비 5.2% 감소

- 2024년 3분기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은 6,154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5.2%,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함.
- 최초 등록자 수는 대체적으로 1분기에 높은 것이 특징이며, 다소 변동성은 있으나 매 분기 6~7천여명의 건설기술인이 최초 등록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6〉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현황 및 증감

(단위: 명)



2. 전 등급에서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수 감소

- 2024년 3분기에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 중 초급 건설기술인은 5,352명으로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87.0%를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전 등급에서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수는 감소하였으며, 중급(-18.1%) > 고급(-16.1%) > 특급(-5.5%) > 초급(-3.9%) 순으로 감소함.

〈그림 7〉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등급별 현황

(단위: 명)



3. 기계 및 안전관리 분야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수 증가

- 2024년 3분기에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의 직무 분야는 건축 2,221명(36.1%) > 기계 1,256명(20.4%) > 토목 1,120명(18.2%) > 안전관리 906명(14.7%) 순임.
- 전년 동기 대비, 건축 및 토목 분야는 각각 9.5%, 18.5% 감소하였으나, 기계 및 안전관리 분야는 각각 3.0%, 5.7% 증가함.

〈그림 8〉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직무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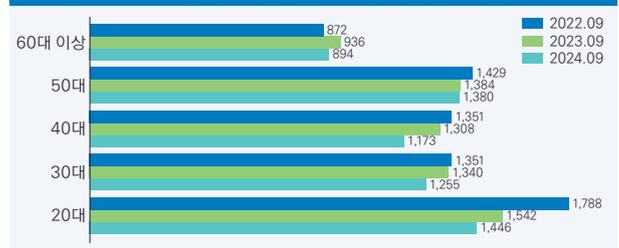


4. 전 연령대에서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 수 감소

- 2024년 3분기에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 수는 20대 1,446명(23.5%) > 50대 1,380명(22.4%) > 30대 1,255명(20.4%) > 40대 1,173명(19.1%) > 60대 이상 894명(14.5%) 순임.
- 전년 동기 대비 전 연령대에서 최초 등록자 수가 감소하였고, 특히, 40대의 감소세가 두드러짐(10.3% 감소).

〈그림 9〉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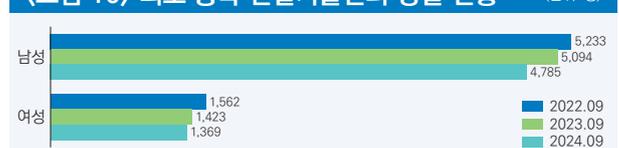


5. 최초 등록 여성 건설기술인 비중 22.2% 차지

- 2024년 3분기에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 중 남성과 여성은 각각 4,785명, 1,369명으로 각각 77.8%, 22.2%를 차지함.
- 전년 동기 대비 최초 등록한 건설기술인 수는 남성과 여성 각각 309명(-6.1%), 54명(-3.8%) 감소함.

〈그림 10〉 최초 등록 건설기술인의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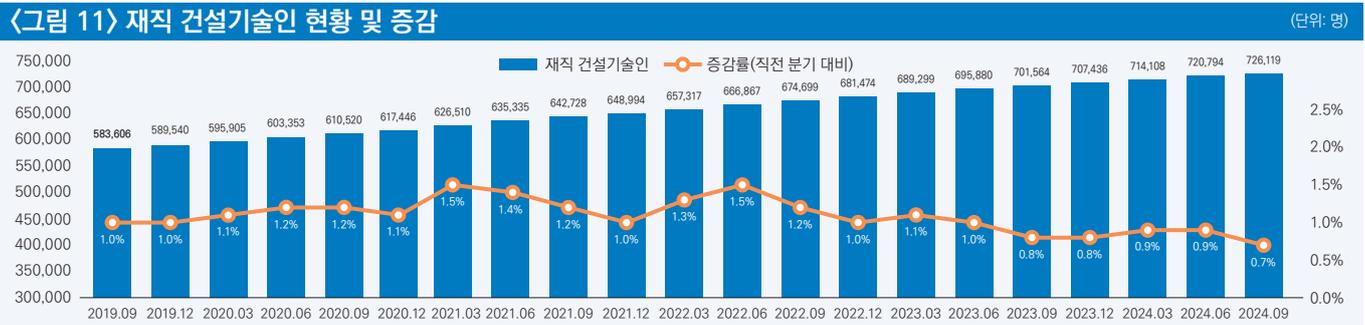
(단위: 명)



04 건설기술인 재직 현황 및 특성

1. 재직 건설기술인은 726,119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71.3% 차지

- 2024년 3분기 기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건설기술인 중 재직자는 726,119명으로 직전 분기 대비 5,325명 증가(+0.7%)하였으며, 전체 건설기술인 중 약 71.3%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남.



2.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은 554,476명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76.4% 차지

- 업종별 비중은 종합건설업(41.1%) > 전문건설업(35.3%) > 엔지니어링(4.8%) > 감리전문회사(2.9%) > 건축사사무소(2.7%) > 주택건설업(1.1%) > 안전진단기관(0.9%) > 기술사사무소(0.8%) > 품질검사기관(0.4%) > 측량업(0.2%) > 기타건설업(0.1%) 순임.

3. 등급별 재직 건설기술인은 초급(46.7%) > 특급(23.1%) > 중급(12.7%) > 고급(11.6%) 순

- 초급 및 특급 재직 건설기술인이 각각 338,997명(46.7%), 167,690명(23.1%)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대부분을 차지함.

4. 50대 이상 재직 건설기술인은 416,880명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57.4% 차지

- 50대 및 60대 이상 재직 건설기술인은 각각 240,819명(33.2%), 176,061명(24.2%)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20대 및 30대 재직 건설기술인은 각각 31,302명(4.3%), 30대 92,107명(12.7%)에 불과함.

5.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재직 건설기술인은 529,622명으로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의 72.9% 차지

- 직무 분야별 재직자는 건축(37.1%) > 토목(35.9%) > 기계(8.6%) > 안전관리(4.0%) 순임.

<표 1> 재직 건설기술인의 업종별 현황 및 특성

(단위: 명)

구분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엔지니어링	감리 전문회사	건축사 사무소	주택 건설업	안전진단 기관	기술사 사무소	품질검사 기관	측량업	기타 건설업	기타	합계(명)	비율(%)	
연령	20~29세	13,643	9,020	2,602	1,785	1,156	146	600	903	63	51	4	1,329	31,302	4.3%
	30~34세	20,637	13,669	3,035	1,616	993	328	744	982	168	79	14	2,863	45,128	6.2%
	35~39세	22,239	15,455	2,438	1,097	561	428	542	610	113	77	45	3,374	46,979	6.5%
	40~44세	37,692	27,866	4,288	1,778	729	865	693	786	264	145	45	6,736	81,887	11.3%
	45~49세	45,274	36,162	4,934	2,013	871	1,223	691	583	755	192	68	9,929	102,695	14.1%
	50~54세	54,783	48,038	5,152	2,798	1,433	1,461	1,055	702	574	247	106	13,345	129,694	17.9%
	55~59세	44,695	40,504	3,871	2,855	2,589	1,099	793	458	692	226	109	13,234	111,125	15.3%
	60~69세	47,563	52,375	6,200	5,228	8,165	1,601	1,085	510	309	471	84	15,052	138,643	19.1%
70세 이상	11,421	12,854	2,552	1,661	2,915	475	463	197	50	163	13	4,654	37,418	5.2%	
기타	354	232	30	122	18	10	3	9	3	1	-	466	1,248	0.2%	
피급	특급	73,872	31,363	13,741	11,748	13,799	931	2,699	1,686	1,157	779	79	15,836	167,690	23.1%
	고급	43,208	20,746	4,731	2,168	1,387	636	1,013	668	754	294	78	8,576	84,259	11.6%
	중급	45,737	30,444	3,404	1,279	615	889	728	688	424	100	83	7,912	92,303	12.7%
	초급	127,771	145,875	11,581	4,908	2,799	5,058	1,962	2,398	566	438	241	35,400	338,997	46.7%
	없음	7,713	27,747	1,645	850	830	122	267	300	90	41	7	3,258	42,870	5.9%
직무	토목	101,784	92,769	21,956	13,036	3,298	879	3,203	360	1,541	1,449	329	19,917	260,521	35.9%
	건축	133,116	80,665	2,509	1,984	11,384	5,142	2,421	4,345	744	55	93	26,643	269,101	37.1%
	기계	18,472	27,823	1,507	1,450	2,546	1,170	161	282	196	18	24	8,850	62,499	8.6%
	안전관리	17,313	6,289	994	475	409	128	403	98	53	9	12	3,144	29,327	4.0%
	그 외	27,616	48,629	8,136	4,008	1,793	317	481	655	457	121	30	12,428	104,671	14.4%
성별	남성	257,982	214,401	30,103	18,975	17,663	6,211	5,849	4,444	2,741	1,501	475	62,421	622,766	85.8%
	여성	40,319	41,774	4,999	1,978	1,767	1,425	820	1,296	250	151	13	8,561	103,353	14.2%
합계(명)	298,301	256,175	35,102	20,953	19,430	7,636	6,669	5,740	2,991	1,652	488	70,982	726,119	-	
비율(%)	41.1%	35.3%	4.8%	2.9%	2.7%	1.1%	0.9%	0.8%	0.4%	0.2%	0.1%	9.8%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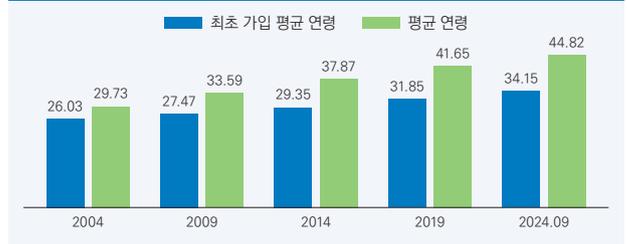
(전체 재직 건설기술인 수 대비 상대적 인원수) 적음 많음

05 여성 건설기술인 현황 및 특성

1. 여성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 44.82세

- 여성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 가입하는 여성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은 2004년 26.03세였으나, 2024년 3분기 기준, 34.15세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여성 건설기술인의 평균 연령 또한 2004년 29.73세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44.82세로 50.7% 증가함.

〈그림 12〉 연도별 여성 건설기술인 가입연령 및 평균연령 (단위: 세)



2. 20대 여성 건설기술인 7.8%, 40~50대 66.4% 차지

- 2024년 3분기 기준, 여성 건설기술인 수는 153,815명으로 전체 건설기술인의 15.1%를 차지하며, 2004년 46,710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함.
- 반면, 20대 여성 건설기술인은 12,049명으로 2004년 24,841명 대비 감소하였으며, 전 연령 대비 20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함(2004년 53.2% → 2024년 7.8%).
-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의 여성 건설기술인 수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40대, 50대 여성 건설기술인 수와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04년 2,485(5.3%)에 불과하던 40대 여성 건설기술인은 2024년 60,732명(39.5%)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 267명(0.6%)에 불과하던 50대 여성 건설기술인은 2024년 41,306명(26.9%)으로 크게 증가함.

〈그림 13〉 연도별 여성 건설기술인 연령 분포 (단위: 명)



3. 초급 여성 건설기술인 70.1%, 건축 및 토목분야 대다수

- 2024년 3분기 기준, 초급 여성 건설기술인은 107,771명(70.1%)으로 남성과 유사하게 초급에 집중된 경향을 보임.
- 직무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 및 토목 분야가 각각 78,289명, 33,91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분야에 대해서 남성 건설기술인은 기계, 안전관리 분야 기술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 건설기술인은 조경, 환경 분야 기술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여성 건설기술인 직무·등급별 현황

(단위: 명)

직무분야	등 급					합계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없 음	
건축	2,226	5,797	10,074	60,192	-	78,289
토목	1,063	1,712	4,091	27,045	-	33,911
조경	743	1,470	2,043	8,814	-	13,070
환경	762	845	770	4,533	-	6,910
안전관리	32	139	312	2,691	-	3,174
도시·교통	339	360	300	1,788	-	2,787
기계	60	91	174	1,894	-	2,219
건설지원	10	18	38	505	-	571
전기·전자	17	16	27	303	-	363
광업	-	-	-	6	-	6
없음	-	-	-	-	12,515	12,515
합계	5,252	10,448	17,829	107,771	12,515	153,815
비율	3.4%	6.8%	11.6%	70.1%	8.1%	100.0%

(전체 여성 건설기술인 수 대비 상대적 인원수) 적음 많음

06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현황

1. 2024년 건설기술인 원격교육 심사 승인 현황

- 교육기관은 원격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교육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최소 1년 단위로 교육 내용을 점검·보완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 '21년~'24년 9월 기준 총 485개 교육과정이 승인되었으며, '24년에는 9월 30일 기준, 총 172개 과정(신규 51개, 변경 121개)을 심사 후 승인함.

구분	기본교육	발주청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건설정책 역량강화	특성화 등	계
신규	2	1	22	7	6	9	4	51
변경	1	2	24	74	15	2	3	121

2. 한국건설인정정책연구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정보 시스템 오픈

- 한국건설인정정책연구원은 지난 2년간 15개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교육훈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9일부터 정식 운영중임.
- 그간 건설기술인이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력관리기관 및 15개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구축한 교육훈련 정보 시스템에서는 교육이력 조회, 교육과정 개설 정보, 수강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하며, 학습평가 응시, 교육 수료증 출력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한국건설인정정책연구원은 100만 건설기술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안내 영상 및 사용자 매뉴얼 마련,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교육훈련 정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음.

- ▶ (24. 9. 30. 기준 회원가입 현황) 방문자 수 34,214명 / 가입자 수 12,019명
- ▶ (24. 9. 30. 기준 기능 개선 현황) 기능개선 약 25건 / 유지보수 약 180건 수행

3. 교육과정 편성 기준 개선의 필요성

-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제25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10개), 전문분야(47개) 및 등급(4개)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교육기관의 집체교육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종합교육기관의 계획 대비 실행률은 2.89%, 전문교육기관의 실행률은 3.78%로 나타나 계획 대비 실행률이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 종합교육기관 : 기본교육 1/8(실행률 0.13%), 설계시공 0/200(실행률 0%) 건설사업관리 1/144(실행률 0%), 품질관리 1/33(실행률 0.03%), 기타 11/65(실행률 0.17%)
- ▶ 전문교육기관 : 설계시공 4/43(실행률 0.09%), 건설사업관리 0/117(실행률 0%), 품질관리 0/5(실행률 0%), 기타 3/20(실행률 0.15%)

- 규정상 최소 편성 교육과정 수가 정해져 있어 실제 운영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의 원격교육 선호도 증가에 따라 집체교육의 운영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4. 제3차 원격교육 BIM과정 개발 보급

- 한국건설인정정책연구원은 교육 수요가 높은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기관에 보급하고 있음.

- ▶ (21년도 집체교육 개발) 스마트건설기술, 글로벌 PMC General, 글로벌 PMC Practice (각 35시간)
- ▶ (22년도 원격교육 1차 개발) 글로벌 PMC Practice ('21년 집체교육 보완 후 개발, 6개 과목, 총 28차시)

- '23년부터는 스마트 건설 진흥의 일환으로 BIM 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BIM 교육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 외 교육기관들의 BIM 교육 강사진 섭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기관에 보급하고 있음.

- ▶ (23년도 원격교육 2차 개발) BIM 건축I, BIM 건축II, BIM 토목 (3개 과목, 각 5차시)
- ▶ (24년도 원격교육 3차 개발) 토목 BIM 이론학습, 토목 BIM 활용사례, 스마트건설 SI (3개 과목, 각 5차시)

<주의사항>

본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수행한 자체 연구성과로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건설기술인 동향 브리핑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처: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50, 8층(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대표전화: 02-6204-4332

홈페이지: <http://www.cepik.re.kr/>

